



# 제152회 발명교실

## 11월 9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52회 발명교실이 지난 11월 9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주)덕신양행 박경서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이소남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묵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은숙 기>

### 건전지식 자동 생수 펌프 (주)덕신양행 대표이사 박경서

‘늘어나는 생수용품에 비해 편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엔 제품이 뒤떨어지고 있다’

요즈음 생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바라 펌프의 다음으로 건전지식 석유 펌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9ℓ의 생수통에서 물을 따라 마신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건전지식 석유 펌프를 개량

하여 생수용 자동펌프를 고안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물과 석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 18.9ℓ 용기의 생수통에 맞게 여러가지 장치를 고안하여 장착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물의 특성이 까다로워지고 타회사에서 서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반해 2년여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러 불량 요인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꾸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2년이 지난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제품은 전국에 통용되고 있는 생수통 가운데 각 생수통의 주입구 크기가 달라 장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의 주입구 크기를 측정하여 고정장치를 고안·표준화 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였다.

발명가 박씨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위로 올라가 막힌 천정에 부딪히면 이슬이 되어 다시 물로 변하는 것에 착안하여, 물통에 통기 구멍을 내어서 공기를 주입시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점은 수증기가 건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심하게 부식되어 모터

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씨는 이런 과제를 환기장치로 해서 수증기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각종 전기 장치는 황동에 크롬도금을 입혀 위생성과 함께 전극 녹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동시에 전기의 저항을 극소화시켜 수명을 대폭 연장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보였다.

특징을 조금 더 내세운다면 스위치 부분을 보다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원터치식으로 개발하였고, 바이오 세라믹을 합성하므로써 위생성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또 소음 문제에 직면하여 식용 그리스를 사용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실리콘 고무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18.9ℓ 생수통의 깊이도 각 생

수통의 제조업체별로 그 깊이가 달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여 경제성을 갖춘 신개념의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앞서가는 선도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의 장비나 기술력이 전무해 더욱 어려웠다.

수많은 현장 테스트외에도 방법이 없어 상당수의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힘든 과정도 여러번이었다. 그 결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독보적인 제품으로 성장하였고 수출계약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박씨만이 출시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일본 1개업체만이 개발하였으나 실패작에 가까와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회사만이 경쟁력이 있음을 제고하여 보다 편리하고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수출대국의 첨병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하며 끊임 없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발명가들의 깊은 생각을 앞세워 보다 더 나은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밝히며 성공사례를 마쳤다. **발특 9611**